

2004년 5월 18일 발표

보건 및 교육 부문을 핵심으로 한 새 경제 성장 청사진 최우선 부문에의 투자, 세입 발생, 비용 절감 등으로 이루어진 4개년 종합 계획

퀸즈파크 - 맥킨티 정부는 오늘 보건 및 교육 부문 투자, 경제 성장 촉진, 균형 예산 등을 그 골자로 한 4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2004년도 예산은 온타리오 주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재정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정책을 제시하는 한편, 온타리오 주 주민이 원하고 필요로 하는 변화를 반영하고 있다고 그렉 소바라 재무장관이 말했다.

사상 처음으로 4개년 종합 재정 계획을 제시하고 있는 2004년도 예산은 투자, 세입 발생, 비용 절감, 경제 성장 등 여러 분야의 시책을 두루 담고 있다.

소바라 장관은 그의 첫 번째 예산을 발표하면서, “온타리오 주 주민들은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의료제도를 개선하고 교육 부문에 투자해야 한다고 말했다. 온타리오 주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경제적 안정과 성장의 초석이 되는 장기적 종합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오늘 발표된 예산에 제시된 주요 시책은 다음과 같다.

의료제도 개선

- 암 환자 대기 시간 단축, MRI 및 CT 검사 시설 9개 증설, 2005-06년도까지 백내장 수술 수용 인원 9,000명 증가, 2007-08년도까지 심장질환 치료 수용 인원 36,000명 증가, 인공관절 시술 수용 인원 2,340명 증가
- 향후 4년간 온타리오 주 전역의 의사, 간호사 및 기타 의료종사자로 구성된 가정의료진(Family Health Team)을 150개 증설하여 24시간 의료 서비스 제공
- 2007-08년도까지 자택 치료 서비스 수혜자가 매년 95,700명 증가하도록 자택 치료 서비스 지속적 확장
- 장기 치료 서비스 부문에 올해 4억6백만 달러를 추가로 투자하여 장기 치료 환자 수용 인원을 3,760명 늘리고 간호사 및 기타 의료종사자 2,000명 증원
- 2004-05년도에 종합병원 운영자금으로 113억 달러 지원
- 온타리오 주 관내 1차 진료 서비스 개선 및 확장을 위해 올해 6억 달러 이상 투자
- 관내 54개 보건소의 1차 진료 서비스 개선 및 확장을 위해 2004-05년도에 1천4백만 달러 추가 지원
- 해외 의대 졸업자에 대한 고용 기회 두 배로 확대
- 종합병원 및 장기 치료 시설에 승강식 환자 이동 장치 12,000개 설치
- 무료 아동 예방접종에 올해 수두, 뇌막염 및 폐렴 등 3종 추가(각 가정의 아동 1명당 600달러 이상의 절약 효과)
- 사스(SARS), 웨스트나일(West Nile) 등의 전염병 퇴치를 위해 올해 공중위생 부문에 2억7천3백만 달러 투자

소바라 장관은, “1차 진료 서비스 부문에 대한 투자로, 가정의를 찾지 못하는 온타리오 주 주민 167,000명이 혜택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학생들의 성공을 위하여

- 2007-08년도까지 온타리오 주 관내 각급 학교에 대한 정부 투자 21억 달러 증액(학생 1명당 지원금 1,100달러 이상 증가)
- 4년간 학급당 학생수 단계적 감축(하급유치원에서 초등학교 3학년까지 학급당 정원 20명으로 제한)
- 주 정부에서 정한 읽기, 쓰기 및 수학 능력 기준 통과 학생 목표치를 2007-08년도까지 50%에서 75%로 끌어올림
- 2005-06년도에 교사 연수 시설 수용 인원 1,000명 증원
- 언어 및 수학 능력 담당 교사 연수 4,000명 추가(총 8,000명으로 증원)
- 교육개선위원회의 추가 지원을 받는 학교 수를 두 배로 늘림

소바라 장관은, “우리 계획은 공교육을 최고의 교육으로 만드는 것이다. 우리 학생들이 자신의 진정한 잠재력을 발휘하게 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온타리오 주를 최대한 발전시키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중 가장 중요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소바라 장관은 또한, 향후 3년간 현행 주 정부 휘발유세에서 2센트를 대중교통 개선에 투자하고, 공중위생 비용에서 주 정부가 부담하는 몫을 2007년도까지 50%에서 75%로 끌어올리며 국도, 공영주택 및 수질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투자하는 등 주요 시책에 대해 설명했다.

이 밖에도 소바라 장관은 2004-05년도 아동 정신건강 프로그램에 2천5백만 달러를 추가로 지원하고(2005-06년도에는 3천8백만 달러 추가 지원), 2004-05년도 아동 보육 부문에 대한 5천8백만 달러의 투자의 일환으로 정부 보조 보육 시설을 4,000개 증설하며, 11년만에 처음으로 온타리오 장애연금(Ontario Disability Support Program) 및 실업연금(Ontario Works) 수혜자에 대한 기본생활비 및 주거비 보조 한도를 3% 인상하고, 고령자에 대한 온타리오 재산세감면(Ontario Property Tax Credit)을 125달러 인상하겠다고 발표했다.

정부의 계획은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예산전 협의에 참석한 수천 명의 온타리오 주 주민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한 것이다. 소바라 장관이 밝힌 바에 따르면, 이 협의에 참석한 온타리오 주 주민들 역시 주요 공익사업을 현재대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점진적으로 균형 예산을 이루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소바라 장관은, “우리의 재정을 안정시키고 보건 및 교육 부문에 투자하기 위해, 우리는 향후 4년 동안 점진적으로 세입을 늘리고 균형 예산을 이룬다는 두 가지 중요한 선택을 했다. 주요 공익사업과 경제 자체를 축소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면서 올해 균형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말했다.

소바라 장관은 의료제도 개선에 필요한 추가 세입은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부과되는 온타리오 보건료(Ontario Health Premium)에 의해 충당될 것이라고 밝혔다. 장관은, “온타리오 주 주민들에게 추가 부담을 요구하는 것이긴 하지만, 온타리오 보건료 징수에 의한 세입은

우리의 4개년 계획을 시행하는 동안 전적으로 보건 서비스 제공에만 투자될 것이며, 이 투자는 환자의 대기 시간이 줄어들고 더 많은 의사와 간호사가 투입되며 자택 치료 및 장기 치료 서비스가 확대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 30 -

문의처:

Centre d'information du ministère des Finance

1 800 263-7965 sans frais (Canada/É.-U.)

Ce document est également disponible en français.

You can access the 2004 Budget and all related documents at <http://www.ontariobudget.fin.gov.on.ca> or by calling 1-800-337-7222.

Korean